

xxxx-xxxxx 영어영문학과 조혜정

화산과 지진

기말레포트

2011.11.29.

19세기 영국 낭만주의 문학에 나타난 화산과 지진의 이미지

1. 들어가며

소설 『프랑켄슈타인 (Frankenstein)』의 서문에서 저자 메리 셸리(Mary Shelley)는 작품을 쓰게 된 배경을 밝히고 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자 시인인 퍼시 비시 셸리(Percy Bysshe Shelley)는 1816년 여름 스위스를 방문해서 바이런 경(Lord Byron)의 이웃이 되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음산한 여름이었고, 끊임없이 내리는 비 때문에 며칠씩 집에 갇혀 있는 경우가 있었다. 마침 프랑스로 번역된 독일의 괴담 몇 편이 그들 수중에 들어왔고, 그것을 읽은 후 그들은 각자가 괴담을 쓰기로 하였다.¹⁾ 이 때 바이런 경의 주치의였던 폴리도리(John William Polidori)는 훗날 뱀파이어류 소설에 영향을 미친 『뱀파이어 (The Vampyre)』를, 메리 셸리는 공상과학소설의 고전으로 꼽히는 『프랑켄슈타인』을 쓰게 된다.

영문학사에서 중요한 두 작품을 등장하게 한 "비가 많이 내리고 음산한 여름"은 1815년 4월 10-11일 인도네시아 섬바와 섬의 탐보라 화산 폭발에 의한 것이었다.²⁾ 이것이 작가들로 하여금 글을 쓰게 했으니, 화산 폭발이 문학에 물리적으로 영향을 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8~19세기의 작가들, 특히 낭만주의 시인들에게 화산과 지진은 문학적 영감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특히 1816년 제네바의 일행에 해당되는 퍼시 셸리와 바이런 경의 시에는 화산과 지진의 이미지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 이들의 작품을 통해 화산과 지진이 19세기 영국 낭만주의 문학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역사적 배경

1755년 리스본 대지진을 비롯해 18세기 후반에 유럽에서는 여러 차례 화산 폭발과 지진이 발생했다. 리스본 대지진은 규모 8.7로 추정되며

1) Mary Shelley, *Frankenstei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7.

2) Jelle Zeilinga de Boer et al., *Volcanoes in Human History: The Far-Reaching Effects of Major Erup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p. x iii.

60,000여명의 사람들이 이로 인해 죽었다.³⁾ 1783-1784년에 걸쳐 아이슬란드 의 라키 산에서 열극을 따라 마그마가 분출되는 화산 활동이 일어났다. 아이슬란드 가축의 50% 이상이 죽으면서 기근이 발생했고, 분출에 의해 발생한 아황산가스는 일부 지역에서 큰 인명 피해, 수확량 감소, 유럽에서의 정치적 불안을 가져왔다.⁴⁾ 에트나 화산은 1763년과 1792년에, 베수비어스 화산은 1760년, 1779년, 1794년에 간헐적인 폭발을 일으켰다. 19세기 초에도 몇 차례 작은 규모의 분출이 있었다.

물론 특별히 이 시기에만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 자주 일어났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화산과 지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그 이유는 일단 이러한 자연 재해에 대한 정보가 훨씬 정확하고 신속하게 기록,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755년의 리스본 대지진은 정량적 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경우였다.⁵⁾ 나폴리 주재 영국대사였던 윌리엄 해밀턴 경(Sir William Hamilton)은 1776년부터 1795년까지 베수비어스 화산 근처에 머물고, 분화구들을 찾아다니며 관찰한 내용을 편지와 에세이로 기록했다.⁶⁾ 두 번째로는, 아이슬란드나 남미의 안데스 산맥과 같은 유럽에서 떨어져 있는 화산 지역이 관찰되기 시작했다. 조지 맥켄지 경(Sir George Mackenzie)의 『아이슬란드에서의 여행 (Travels in Iceland)』(1811), 알렉산더 폰 훔볼트의 저서 등이 그 예이다.⁷⁾ 세 번째로, 화산 폭발이나 지진은, 특히 1755년의 리스본 대지진은 계몽주의, 합리주의, 낙관주의가 지배적이던 당시 유럽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다. 라이프니츠(Leibnitz)와 포프(Pope)로 대표되는 낙관주의는 신은 선하고 공정하며, 인간의 불행은 인간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한 명의 칼리굴라, 한 명의 네로가 지진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였다"⁸⁾는 라이프니츠의 주장에서 그러한 생각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리스본 대지진 이후 낙관주의의 뿌리는 크게 흔들렸고, 볼테르(Voltaire), 루소(Rousseau), 칸트(Kant) 등의 새로운 철학 사상이 등장했다.⁹⁾

주로 1800년대 초반에 작품을 썼던 바이런과 퍼시 셸리에게 영향을

3) Marc-André Gutschier, <What Caused the Great Lisbon Earthquake?>, Science, Vol.305 no.5688, 2004, p.1247.

4) S.Self, <The Effects and Consequences of Very Large Explosive Volcanic Eruptions>, Philosophical Transactions, Vol.364, No.1845, p.2091.

5) 화산과 지진 수업자료, 지진-1. 지진의 발생, p.2.

6) Noah Heringman, <The Style of Natural Catastrophes>, Huntington Library Quarterly, Vol.66, No.1/2(2003), p. 97.

7) G.M.Matthews, <A Volcano's Voice in Shelley>, ELF, Vol.24, No.3, p.197.

8) G.W.Leibniz et al., Theodicy, New York: Cosimo Classics, 2010, p.198.

9) Edgar S.Brightman, <The Lisbon Earthquake: A study in Religious Valu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Theology, Vol.23, No.4(Oct., 1919), p.515.

미쳤던 것은 위의 세 번째 이유, 즉 새로운 철학 사상의 등장과 1815년 탐보라 화산 폭발로 인한 기후 변화였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이 화산 폭발로 인해 이후 몇 년간 전세계적인 기후 변화가 일어났다. 그 중에서도 폭발 이듬해인 1816년은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 사람들에게 "여름 없는 해 (the year without a summer)"로 알려지게 된다. 북반구의 연평균기온이 0.4~0.7℃ 떨어졌다. 미국 북동부와 캐나다 동부에는 여름에도 서리와 눈이 내렸고, 서유럽에는 많은 비가 내렸다.¹⁰⁾

3. 바이런과 퍼시 셸리의 작품에 나타난 화산과 지진

1816년 7월에 바이런은 '어둠 (Darkness)'이라는 시를 쓴다. 이 시에는 "밝은 태양이 사라지고 (The bright sun was extinguish'd)", "별들은 무한한 우주에서, 빛도 없고 길도 없이, 희미하게 빛나며 방황하는(the stars/ Did wander darkling in the eternal space,/ Rayless, and pathless)" 어두운 하늘이 나타난다.¹¹⁾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묘사되는 세계의 종말 (Apocalypse)에 대한 시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물론 이 시에는 성경적인 암시가 드러난다. "더 이상 사랑이 남아있지 않았다 (no love was left)"는 구절이나 사람들이 "이를 갈고 울부짖었다 (gnash'd their teeth and howl'd)"는 구절¹²⁾은 마태복음 24장에 실제로 있는 표현이다. 또 당시에 화석의 발견으로 일부 생명체가 멸종되었던 사실이 증명되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 시에는 종교적인 요소, 즉 재앙을 불러오는 신의 존재도, 신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인간의 잘못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어둠은 갑자기 찾아와서 그 자체로 "우주가 된다. (Darkness had no need/ Of aid from them — She was the Universe.)" 또 위와 같은 해석은 당시의 역사적 배경, 즉 시인과 독자들이 공유했던 구체적인 경험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다. 그 구체적인 경험이란 1816년의 우중충한 여름, 육안으로도 관측된 태양의 흑점들, 실제로 그 해 7월 18일에 태양이 타서 없어질 것이라는 이탈리아 천문학자의 예언이었다.¹³⁾

10) Richard B. Stothers, <The Great Tambora Eruption in 1815 and Its Aftermath>, Science, Vol.224, No. 4654, p.1191.

11) Lord Byron, <Darkness>,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New York: W.W.Norton& Company, 2005.p.614.

12) ibid. p.615.

13) Jeffrey Vail, <The Bright Sun was Extinguish'd: The Bologna Prophecy and Byron's "Darkness">, Wordsworth Circle, Vol.28-3, p.183.

시에 화산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기는 하지만, 이 시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아마 화산 폭발에 의한) 캄캄한 하늘이다. 화자는 "화산과, 그 산 위의 햇불을 시야에 두고 사는 이들은 차라리 행복하였다 (Happy were those who dwelt within the eye/ Of the volcanos, and their mountain-torch)"¹⁴⁾고 말한다. 빛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모든 열정을 잃어버렸기 (men forgot their passions in the dread)"¹⁵⁾ 때문이다. 당시에 사람들이 느꼈을 두려움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죽음과 "기근으로 인한 고통 (the pang/ Of famine fed upon all entrails)"¹⁶⁾까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위의 작품에서 드러나듯 바이런은 화산과 지진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힘보다는 그로 인한 기후나 환경의 변화, 사람들의 두려움과 고통 등에 관심을 가졌다. 다만 그가 내린 시(poetry)의 정의에서 화산과 지진의 원인에 대한 당시의 믿음이 드러난다. 그는 시가 "상상력의 용암이며, 그 분출이 지진을 막는다 (It is the lava of the imagination whose eruption prevents an earthquake)"¹⁷⁾고 했다. 이는 화산과 지진이 모두 궁극적으로 땅 밑의 화염에 의해 발생하며, 그 화염에서 끓어오르는 증기가 분출구를 찾지 못했을 때 땅을 진동시키는 것이 지진이라는 당시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¹⁸⁾

반면 퍼시 셸리는 화산과 지진을 일으키는 그 강력한 에너지에 매료되었다. 나폴리에서 1818-1819년 겨울을 보내면서 다작을 했던 그는 화산을 "숭고하다 (sublime)"고 생각했고, 그에게 많은 문학적 영감을 준 프랑스의 알프스 산맥에 버금가는 장엄함을 가졌다고 말했다.¹⁹⁾ '종달새에게 (To a Sky-Lark)'라는 시에서 그는 종달새가, 또 그 새의 노래가 "높이, 더 높이 / 마치 화염의 구름처럼/ 땅으로부터 너는 솟아오른다(Higher still and higher/ From the earth thou springest/ Like a cloud of fire)"²⁰⁾고 한다. 시에서 종달새의 노래는 인간이 절대 모방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순수한 노래이므로, 화산은 "생각과 감정의 분수"와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다. "몽블랑 (Mont Blanc)"이라는 시에서는 장엄한 알프스 산맥이 어찌면 지진

14) Lord Byron, p.615.

15) ibid., p.614.

16) ibid., p.615.

17) Lord Byron, Byron to Miss Milbanke (letter), 10 Nov. 1813.

18) John Michell, <Conjectures concerning the Cause, and Observations upon the Phaenomena of Earthquakes>, Philosophical Transactions, Vol.51 (1759-1760), p.457.

19) David D.Nolta, <The Body of the Collector and the Collected Body in William Hamilton's Naples>, Eighteenth-Century Studies, Vol.31, No.1, 1997, p.109.

20) Percy Bysshe Shelley, <To a Sky-Lark>,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New York: W.W.Norton & Company, 2005, p.817.

의 놀잇감에 불과했거나, 한때 불바다가 산을 뒤덮었던 게 아닐까 하는 그의 추측이 드러난다.²¹⁾ 알프스 산의 모습만으로도 자연의 장엄함을 드러내지만, 만약 화산 활동이나 지진이 그것을 만들어냈다면 그야말로 자연의 초월적인 힘이 화산이나 지진의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화산의 이미지가 주로 등장하는 것은 1817년 이후의 작품이다. 예를 들어 1813년에 출판된 시 "여왕 마브 (Queen Mab)"에는 지진만 세 차례 언급될 뿐이다. 그리고 지진의 에너지는 언제나 "전쟁 (battle)"과 "폭정 (tyranny)" 같은 부정적인 작용과 연관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를 부정적으로만 본 것은 아니다. 그는 "암살자의 계곡 (The Valley of Assassins)"에는 "용기와 활동적인 미덕이... 갇혀 있는 지진처럼 잠들어 있었다 (Courage and active virtue... slept like the imprisoned earthquake)"²²⁾고 하면서 지진의 에너지를 드러나지 않는 긍정적이고 강력한 힘에 비유한다. "화산은 각자 우리 몸의 사지를 울렁거리는 기쁨으로 활기차게 하는 정령을 갖고 있다 (the volcano have each a spirit which animates the extremities of our frame with tingling joy)"²³⁾는 말에서 드러나듯 화산이 품고 있는 "정령" 역시 긍정적인 힘이다. 그는 대체적으로 화산과 지진을 교환 가능한 시적 대상으로 보고 두 이미지를 함께 사용한다. 그리고 그 이미지의 본질은 "울렁거리는 기쁨"이라 할 수 있다.

4. 맺으며

본 레포트는 소설 『프랑켄슈타인』의 서문에서 작가가 소설을 쓰게 된 배경으로 1816년의 우중충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을 언급한 데서 착안해 작성되었다. 따라서 메리 셸리와 당시에 그녀와 함께 있었던 폴리도리, 바이런, 퍼시 셸리만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참고 문헌들에 따르면 18~19세기 화산과 지진이 문학과 철학에 미쳤던 영향은 훨씬 광범위하다. 또 두 자연 현상에 대한 관심이 동시대의 독일, 프랑스 문학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사실도 흥미로웠다. 이에 대한 연구는 자연 과학이 어떻게 철학과 문학을 변화시키고, 또 그 변화가 다시 자연 과학의 발전을 촉진하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21) Percy Bysshe Shelley, <Mont Blanc>,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New York: W.W.Norton & Company, 2005, p.764.

22) Percy Bysshe Shelley, Essays, Letters from Abroad, Translations and Fragments, ed. by Mary Shelley, Philadelphia: Lea and Blanchard, 1840, p.161.

23) ibid. p.145.

참고문헌

- Brightman, Edgar S. (1919). <The Lisbon Earthquake: A study in Religious Valu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Theology*, Vol.23, No.4.
- De Boer, Jelle Zeilinga. et al.. (2004). *Volcanoes in Human History: The Far-Reaching Effects of Major Erup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reenblatt, Stephen et al., (2005).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New York: W.W.Norton & Company.
- Gutscher, Marc-André. (2004). <What Caused the Great Lisbon Earthquake?>. *Science*, Vol.305, no.5688.
- Heringman, Noah. (2003). <The Style of Natural Catastrophes>. *Huntington Library Quarterly*, Vol.66, No.1/2.
- Leibniz, G. W. et al.. (2010). *Theodicy*. New York: Cosimo Classics, 2010.
- Matthews, G. M... (1957). <A Volcano's Voice in Shelley>. *ELF*. Vol.24, No.3.
- Michell, John. (1759). <Conjectures concerning the Cause, and Observations upon the Phaenomena of Earthquakes>. *Philosophical Transactions*, Vol.51 (1759-1760).
- Nolta, David. D.. (1997). <The Body of the Collector and the Collected Body in William Hamilton's Naples>. *Eighteenth-Century Studies*, Vol.31, No.1.
- Self, S.. (2006). <The Effects and Consequences of Very Large Explosive Volcanic Eruptions>. *Philosophical Transactions*, Vol.364, No.1845.
- Shelley, Mary. (2008). *Frankenstei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helley, Percy Bysshe. (1840). *Essays, Letters from Abroad, Translations and Fragments*. ed. by Mary Shelley. Philadelphia: Lea and Blanchard.
- Stothers, Richard B.. (1984). <The Great Tambora Eruption in 1815 and Its Aftermath>. *Science*, Vol.224, No. 4654.
- Vail, Jeffrey. (1997). <The Bright Sun was Extinguish'd: The Bologna Prophecy and Byron's "Darkness">. *Wordsworth Circle*, Vol.28-3.